

연중 제33주일  
평신도의 날

기도서 477 면(A해)

제1독서 : 잠언 31, 10-13, 19-20, 30-31

제2독서 : I 데살 5, 1-6

복음 : 마 태 25, 14-30

# 숲 정 이

발행 편집 인 : 전주교전주교구  
홍보 관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 강 론



## 平信徒와 使命과

김 인 협

우리 천주교회는 200년 동안의 험한 준령을 넘고 세상의 복음화를 위한 300년대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교회는 해마다 연중 마지막 주일의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정하여 평신도 사도적의 중요성과 그 신성한 사명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만 오늘날과 같이 평신도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날로 그 역할이 기대되는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평신도사도적협의회는 진의서를 통하여 각 교구에 평신도의 자율적 활동과 대 사회 선교를 위한 특별기구(예 평신도국)의 설치와 평신도주일 헌금의 2차헌금으로서가 아닌 전액을 활동기금과 교육기금으로 사용케 할 것 또한 평신도내의 신학교의 개방 및 주교회의에 앞서 버 자격의 평신도 참여 등을 주교회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평신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복음의 전파입니다. 우리는 미사의 끝 마다 복음전파의 명을 받고 그 명을 기쁘게 수락합니다. 또 모든 신자 재교육의 끝 마무리는 파견미사로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심을 위해 교육으로 무장했지만 그 신앙심과 신념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범된 신자생활로 남에게 좋은 표양을 보이는 간접적인 선교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제는 적극적인 선교방법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 영세입교시킴 인원을 한 해에 몇명 또는 한 달에 몇명 목표를 정해 두고 꼭 실천하려는 방법과 또 어떤 비신자를 입교시킴 의향이 있으면 그를 설득하여 절반 씩 신자 만들어서 교회에 안내하는 것보다 교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성인들의 교리반이나 가까운 본당의 교리반에 일단 등록케 설득하여 교육을 확실히 받도록 유도하는 이를테면 교회까지 인도만 하고 교리교육은 전문기관에 위임하는 방법도 그 효과를 뿐만 아니라 입교시키는 기일도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교 20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의 활동과 교황 성하의 한국방문 후 더욱 교회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많아졌고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에 평신도들은 모든 힘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음말씀대로 주인께서 맡겨놓은 각자의 달란트(초자연적 선물인 은총)를 땅속에 묻어 두지 말고 주인이 돌아 올 때까지 활용하여 몇 배로 늘려서 주인이 돌아온 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의 큰 사명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교구 평협회장)



## 농촌교우들과 함께

지난 주일에 전주 해성학교에서는 농민 신앙대회가 열렸다. 교구 농촌사목 위원회는 이 신앙대회를 통해서 농민과 도시민이 신앙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만남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 농민들은 큰마음먹고 한 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감사미사를 드리고 자신들의 아픈 소리와 소비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막걸리 한 잔에 한숨을 토했다. 그러나 도시민들은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의 구매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들은 판매대만 기웃거리다가 대개는 일찍 돌아갔다. (제발 잘못 보았기를 바란다.) 이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교구는 농촌 신자가 50%를 차지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교구 평협(평신도 사도적 협의회)은 도·농간의 형제애를 강조해 왔다. 힘 닿는대로 원하는 시골본당이 공소를 찾아 교우의 자리를 만들기도 했다. 금년에는 성인탄생 경축대회를 기해서 농촌 교우들을 초청해서 민박을 통한 나눔도 시도해 보았다. 덜 필요한 일상용품을 모으기도 했다. 물론 처음있는 일이라 시행착오도 있으나 참으로 귀중한 시도였다. 나눔은 신앙안에서 가능하고 더욱 성숙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

농촌은 우리 생활의 중요한 한 뿔을 담당하며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민들은 이 사회안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안에서 그러서는 안된다. 농민들은 우리의 생명이고 더구나 만 남도 아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민은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모른척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오늘 평신도의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농촌 교회를 생각하며 그들과 신앙안에서 사랑을 나눌 체비를 갖추자.

## 숲 정 이 산책



나리! 뒤 좀 돌아다 보쇼!

□전주교구 성지⑩

# 결 의 문

## 남문 밖(전동성당) 일대

우리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을 되돌아보고 농촌생활에 희망을 찾고, 새 삶을 결단하기 위하여 '84 농민신앙대회에 자리를 함께 하였다.

농업은 생명의 산업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 이요. 이에 종사하는 농민은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맞는 협조자이며 민족과 역사 발전에 주체임을 확인한다.

그러나 농민의 현실은, 공업위주의 농업회생정책으로 인한 저농산물 가격정책과 외국농축산물도입, 농민소외의 농지정책, 불공평한 농지세와 공과금 부담, 영농자재 등 공산품 가격의 폭리, 강제농정 및 전시농정 등으로 농가경제는 빚더미에 올라섰고 아무리 애써도 해 볼 만한 농사가 없어 농민은 이제 영농기피 내지는 포기 상태에 놓여있다.

정치면에서도 역시 나라의 장래문제는 물론 직접 농민의 생계와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는 일 마저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길이 없이 의무만을 강요받으며 살고 있음을 직시한다.

빛 걱정, 자녀교육 걱정, 병날까 걱정 등 농민은 걱정이 쌓일수록 더욱 살기 위해 더 피땀을 흘리며 버티다 보니 건강을 잃고 이리저리 억울한 일 뿐으로 몸과 마음은 병들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어디에 호소하고 의논하고 협력을 구할 곳이 없다. 농민을 위한다는 사람, 단체나 조합은 있으나 오히려 농민을 이용하고 못살게 굴 뿐이다.

지금 농민의 사회적 위치는 너무 비천하다. 우리도 농사일에 긍지를 갖고 사람답게 살며 이 나라 이 겨레의 발전에 제구실을 다하며 살고 싶다.

우리를 한숨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는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처지를 변혁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이 일을 농민 스스로 해야 하고 함께 공동체적 노력으로만이 가능함을 확신한다. 새 희망을 향한 이 일을 위하여 새 삶을 살기로 우리는 다시 결단한다. 예수께서 살고 보여주신 교훈에서 희망을 얻는다. 서로가 하나되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새 공동체를 농민사회에 건설하고 공동체적 삶을 방해하는 세상의 죄-즉, 잘못된 정책, 제도, 불의, 폭력과 끊임없이 대결해 나갈 것이다.

농민의 삶을 되찾고 전체 국민의 번영을 위하여 피폐한 농업과 빚더미의 농가경제를 일으켜 세움으로써 식량자급과 자립경제를 달성하고, 정치, 경제적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실적 당면문제에 관해 여기 우리의 주장을 밝히며 이의 실현을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을 다짐한다.

(3면 하단에 계속)

전동성당 자리와 그 일대 남문 밖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와 호남의 사도 유 함겸 그리고 초대 전주지방 교회의 지도급 인물들이 처형된 곳이다.

윤 지충(바오로)과 권 상연(야고버)은 양반의 후예로 내외간이며 1786년 세례를 받았다. 1791년 여름 윤 지충이 모친상을 당하자 외종형인 권 상연과 상의하여 모친의 유언대로 유교식 절차를 폐하였다. 이것은 유교의 전통에 속해 있던 이조후기 사회를 전폭 부정한 도전이었으나 교회와 모친의 뜻에는 순종과 효성이 되었다. 국법을 지키기보다 신앙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였으니 12월 8일 윤 지충은 33세, 권 상연은 41세로 참수치명 당하였다. 그들의 피는 많은 기적과 일화를 남기고 있다.

1801년 천주교 박해령이 내려자 3월 호남에 검거선봉이 일어났다. 호남의 사도 유 함겸을 위시해서 200명이 체포되었다. 윤 지충이 처형된 자리에서 9월 17일, 유 함겸은 대역부도죄목으로, 그의 아우 유 관겸과 윤 지충의 아우 윤 지현은 역적도의죄로 사지가 여섯 갈래로 찢기는 능지처참형을 받았고, 이 우점과 김 유산은 불고지죄로 참수되었다. 유 함겸의 머리는 풍남문 누각에 매달려 경각심의 선전거리가 되었다.

이 사건이 있는 지 90년이 지나고 전동성당을 자리잡은 윤 사베리오 신부는 류벨 주교에게 이곳에 자리잡는 심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박해 때마다 용감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처형된 이곳에 제가 머문다는 것은 집권자에 대한 도전이며 그들의 부당한 판결에 대한 저항"이라고 비장한 전교의 각오를 다지고 있었다. 과연 윤 신부는 1891년 본당을 시작한 이후 개화시대의 격동기를 거치면서 이 교당의 개화를 위한 교육에서 - 복음의 전교에 이르기까지 선교사가 겪어야 할 고통과 시련은 박해시대에 견줄만큼 수난과 역경의 연속이었다. 그런 가운데 뼈를 짚는 각고의 노력으로 오늘날의 전동성당을 세운 것이다.

전동성당이야말로 순교자의 피가 신자들의 신앙의 씨앗이 되어, 신앙을 위하여 죽기를 사랑한 사람들의 피나는 노력의 역사를 우뚝서서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사적 288호로 지정된 것은 전동성당의 역사를 오늘이 인정하는 결과이다.

(※ 이번으로 교구성지 연재를 끝냅니다. 원고를 제공해 주신 호남교회사연구소 김 진소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 성 가 약 국

전주시 서완산동 1가 216  
☎2-5835

권 성 윤(요 셉)  
소 수 자(벨라벳다)

영진 비디오 사

취급품목  
대우전자 T.V, V. T. R, 각종성서, 교육용, 프론티어, 판매 및 교환  
체석자(글라라)  
2-4094 전주 백화점옆

日式 산생선  
조용하고 안락한 휴식처

### 금강회집

이 로사(향촌)  
군산시 금동 1-77  
(도선장 옆)  
전 화 ☎ 7706·7719

이땅에빛을

200주년 및 구원성년 마감 7일기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그리스도왕 대축일(25일)로 200주년과 구원성년을 마감하면서 한국천주교회 200주년기념 정신운동위원회에서는 이 때가 더욱 풍요로운 은총의 시기가 되도록 7일 기도를 마련하고 모든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바쳐지는 7일 기도는 각 본당에서는 주임신부 주례로 주교와 성당에서는 주교님의 주례로 바쳐지는 25일 공식미사로서 끝을 맺게 된다.

※ 성년 전대사를 받도록 합시다

①교구 또는 본당 차원에서 성년의 지향을 따라 공동체로서 거행하는 전례 혹은 피정에 참여함으로써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단, 교황성하의 뜻을 따라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고 모든 믿는 이들이 어디서나 신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기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죄를 누워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 및 성체성사를 받고, 용서, 화해, 자신의 행위를 할이 바랍직하다.

②성년 지정성당(중앙, 전동, 화산성당) 중에 하나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묵상하며 잠깐 머물러 사도신경과 주의기도 그리고 교황성하의 지향대로 기도를 바침으로써 성년대사를 얻을 수 있다.

③성년대사는 하루에 한 번밖에 받을 수 없으며 모든 대사는 언제나 연령에게 양보할 수 있다.

□ 목요성서 강좌

구약 신약의 근본적이고 주류를 이루는 '성서의 테마' 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성서를 보는 시야를 넓히며 '토론과 기도시간'을 통하여 신앙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탐구해가는 '목요성서 강좌'에 젊은 지성인들을 초대합니다.

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30분 대상 : 남녀 젊은이(초·중고 교리교사 환영)  
장소 : 가톨릭 센터 3층 회비 : 매월 2천원  
강사 : 문 규현 신부님

□ 성지개발 성금 -부산 범일동 성당

1백만원 : 강수산나, 한울리안나, 강안나, 김엘리사벳, 최혜테나, 송테테사, 김마리아, 강아카다, 배마리아, 이글라라, 신누갈라, 김베로니카, 강아네스, 윤로사, 옥아네스, 김폴리아, 조베로니카(17명이 제를 조직하여봉헌) 1백만원 : 범일동 성가병원 원장 김진기(루카) 2만원 : 이베로니카 1만원 : 이젤마 5십만원 : 정마리아 1십만원 : 이베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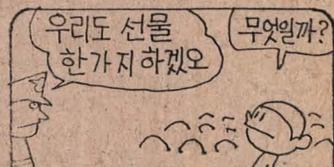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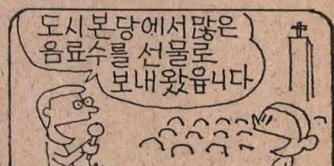
※ 성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면에서 계속)

- 1. 우리는 오늘 농민신앙대회를 통하여 도시 공동체와 농촌 공동체가 서로 힘을 합하여 하늘과 땅과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세상의 죄를 없애는 싸움을 계속하며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하느님 나라를 생활 현장에 건설할 것을 다짐한다.
- 1. 농업과 농민을 망치는 경제사회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라.
- 1. 무분별한 외국 농축산물의 도입을 즉각 중지하고 외국 소 도입으로 망한 소 사육농가의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라.
- 1. 생산비가 보장되는 선에서 수매가를 재조정하라.
- 1. 농협의 입시조치, 농지개발조합의 잠정조치를 즉각 철폐하고 조합장 직선제를 실시하라.
- 1. 불공평한 각종 조세공과금을 바로잡고 부당한 각종 잡부금을 폐지하라.
- 1. 잘못된 농민회생정책으로 야기된 농가부채를 전면 탕감하라.
- 1. 재벌들의 토지 투기와 축산 침투를 근절시키고 소작농을 일소하라.

1984. 11. 11 전주교구 농민신앙대회 참가자 일동

요심이(589) 김병오



전북의료보험조합 지정  
**소흥영외과의원**  
의학박사 소흥영(요한)  
전주시 서노송동 602-21  
병원 ☎ 3 6 6 8  
자택 ☎ 8 1 2 0

제 2 차  
**무료진찰 및 침구치료**  
임정골 한방의  
대상 : 군산 육구 6개 본당  
교우(각 본당 계시판 참조)  
일시 : 84년 11월 19일(월) ~ 11월 24일 6일간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혼수(회갑) 웃감 | 도매상  
• 특수 파티복 |  
• 고급 침구류 |  
• 각종 솜 일체 |  
• 커벤지 |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로니카)

학원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 T. 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 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 김 테레사(금순)  
☎ 9206 · 5289

**群山 임정골한방의원**  
진료과목 : 침구과, 부인과, 내과, 외과(뼈)  
원장 임 스테파노(의성)  
특설 : 물리치료실  
척추교정 및 디스크상담  
☎ 2-2403 (국도극장 뒤)



- 11월 성소자 모임: 18일 오후 1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3층, 대상-성소자 모임회원 및 관심있는 분들·부모님, 지원물-신·구약성서·성가집·묵주
- 11월 꼬미씨움 회의: 18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대상-각 꾸리아 간부 및 직속Pr. 간부 전원
- 사목방문: 22일-성심학교, 23일-해성학교
- 푸른군대 특별피점: 24일(토)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군산 팔마성당, 준비-회비 1천원·도시락 지참·미사 및 피정도구, 강사-김영환 신부·유재호
- 가톨릭 센타 제5기 예비자반 영세식: 24일 오후 7시30분, 장소-센타 강당, 주례-박정일 주교님
- 전주교구 여성 제17차 푸르실로 동창회: 21일 오전 9시30분, 장소-가톨릭 센타, 준비물-미사도구
- 제1지구(전주) 중·고생 성가경연대회: 25일

제 1 지구 각 본당 소식 ①

(중앙)

전화 ⑥1711~3  
 주임 신부 문정협  
 보좌 신부 나준섭  
 사도 회장 김인협

- 성모유치원 원아모집: 원서교부 12월 1일~12월 2일 오전 9시부터, 장소-본 성모유치원
- 9시미사: 20분전부터 성가연습(미사에 늦지 맙시다)
- 레지오 연총 친목회: 12월 8일, 장소-중앙신협
- 교적에 주소, 전화번호, 물리시는 분: 사무실에 신청
- 병자 봉성제: 20일 6. 울드레아: 25일 공식미사 후
- 방ziger 3회: 25일 오후 2시
- 중학교 교리반피점: 무사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난주 봉헌금: 859,800원 고무금: 487,500원  
 감사헌금: 이말가리다-1만원

(노송동)

신부 ⑥0969 주임 신부 김흥태  
 수·사 ③7032 보좌 신부 이흥재  
 사도 회장 이흥재

- 정성과 희생으로 새 성전 건립하자: 20만원-이가타리나, 15만원-김휘남·이우래, 10만원-박현교, 3만원-원-홍효순, 5만원-한승현·윤요한·이인석·노재순, 1만9천원-양순이, 1만원-김학운·오정희·양철환, 5천원-박현규·김마리아·김방직·조결례 소제-899,000원, 누계-113,913,000원
- 구역대항 연도대회: 24일 오후 1시부터
- 형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꾸리아 화합: 오늘 오후 3시, 각급 간부님들 참석
- 신년도 사업계획서 제출: 각단체 회장님은 25일까지
- 교무금 납부합시다: 11월말 교무금 납부현황 공개
- 공소회장단 회의: 20일 오후 3시, 황순공소에서
- 요셉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 축! 아파트에 소년 P. R 탄생: 단장-전요안나, 부 단장-박텔베우아, 서기-안요안나, 화제-박철택리아
- '84 가을 젊은이의 큰모임: 20일 P. M 6시30분부터

(덕진)

신부(3) 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 1222 보좌 신부 김오안  
 사·수(72) 6259 사도 회장 양상열

- 오늘의 모임: 성모회·반석회
- 새신자 가정방문(새영세자, 이래자 중심)  
 20일 오전-금암1~4반, 오후-금암5~8반, 21일 오전-덕진1~5반, 오후-덕진6~10반, 22일 오전-덕진11~15반, 오후-덕진16~20반, 23일 오전-팔복1~3반, 오후-송진1~8반
- 마리아군단 (L.M) 1월 연수회: 전단원 대상 25일 오후 1시30분~저녁 9시, 장소-덕진성당 (저녁미사 후 영화"소명"상영)
- 전주지구 중·고 성가경연대회: 25일 오후 1시30분
- 추계 판공성사 예고: 27일부터 받별로 실시함
- 선교분과위원회·만나회: 21일 저녁 7시30분
- 금주 본당철소: 진복회·성심부녀회(24일 오후 3시)
- 지난주 봉헌금: 500,235원 고무금: 317,000원

(북자)

사제관 75-0592 주임 신부 권영균  
 사·수 2-5238 사도 회장 김성원

- 사도회: 다음주일 저녁미사 후
- 설우회: 오늘 공식미사 후
- 꾸리아 화합: 오늘 오후 2시
- 유아세례: 24일 오후 3시
- 교무금 미수 완납 바람
- 온풍기 헌금: 익명-10만원, 익명-1만원, 김학필-3천원, 유기남-5천원, 누계-898,000원
- 평신도주일: 오늘 특별헌금 있습니다
- 빈첸시오회: 26일 오전 10시

- 축! 결혼: 오늘 12시, 신랑-김재식(마리노), 신부-오요순(요안나)
- 금주전례: 해설 김인식, 독서-①정동민 ②진까리따스  
 차주전례: 해설-황만금, 독서-①천 건 ②정운주
- 지난주 봉헌금: 119,260원 고무금: 396,250원

(서학동)

신부 ⑥8307번 주임 신부 김동준  
 수녀 ②276번 사도 회장 김낙균

- 모임: 성모회-공식미사후, 울드레아-22일 7시30분
- 성전 보수공사 헌금: 2만원-윤순례·최천대자, 3만원-강경표·조동근, 5천원-이삼례·박복순·양해순·정순례·서점순, 3천원-고기순, 1만원-김분순·이계순·이명길·김수부·이정애, 2천원-김학래, 5만원-김강미, 1천원-박춘자·김병곤, 20만원-오윤길, 10만원-김광수, 누계-7,408,411원
- 유아세례 및 병자방문: 해월 세제주 목요일
- 예비신자 교리: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진반, 오후 2시-선반, 미반-오후 8시, 학생-매주 토 오후 5시
- 차주전례: 해설-김낙완·김은경, 독서-①김병희 ②신영창, 기도-셋별Pr
- 지난주 봉헌금: 298,610원 고무금: 143,000원

(숲정이)

전화 ⑥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③9567 사도 회장 김수길

-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신영세자 모임: 연기합니다
- 사목방문: 시간 오후 1시~5시, 오후 7시~9시  
 20일-진복2동4구, 21일-진복2동5구, 22일-진복2동6구, 23일-진복2동7구, 27일-진복2동8구, 28일-동양아파트, 29일-진복2동9구, 30일-진복2동10구
- 예비자 교리시간: 매주 화-오전 10시 수-오후 7시 30분, 목-오후 7시30분
- 오늘은 평신도주일: 예비자 인도에 적극 협력바람
- 금주전례: 해설-이귀래, 기도·독서-김남곤·허옥순  
 차주전례: 해설-이귀래, 기도·독서-홍성호·홍숙자
- 지난주 봉헌금: 231,670원 고무금: 297,70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치삼  
 전화 사·수 ③3222 보좌 신부 정영호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양호

- 성화회: 공식미사 후
- 꼬미씨움: 오늘 오후 2시
- 성마리아 꾸리아: 오늘 오후 4시
-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1시30분
- 가정방문: 20, 21, 23, 24일-전동·중앙동·경원동·기타
- 자모회 메주판매: 교우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200주년 기념사업 성금: 간송회-5만원, 김순자-2만원, 김명자-5천원, 서양순·정현자·서정걸·이소녀 김재규-각 1만원, 김현갑·강금옥-각 1만 5천원
- 다음주 전례담당  
 공식미사: 해설-이주철, 독서-①안득수 ②고수창
- 지난주 봉헌금: 759,670원 고무금: 172,500원

(호자동)

신부 75-3841 주임 신부 박종신  
 수녀 2-4804 사도 회장 이교성  
 사·수 2-0915

- 사목방문: 20일-효자1단지, 21일-에그린아파트
- 주일학교: 교리(토) 오후 3시30분, 미사 4시30분
- 예비교사 학생미사: 22일 오후 7시 (새벽미사 없음)
- 각분과별 계획서 제출 바람
- 유아세례: 다음주 학생미사 후(10시)
-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313,480원 고무금: 388,500원